



예수를 위하여

임영수 목사

금년으로 우리 교회는 창립 열 두 돌을 맞습니다. 사람의 나이에 비하면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하고 소년기에 있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바른 훈련을 받아야 다음 장성한 후에도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교회로 자라야 하겠습니다.

금번 창립 열 두돌을 맞아 이미 고인이 된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의 글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글이 성도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좋은 지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은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교회나 자원봉사 조직이나 자선단체의 내부에는, 바깥 사회에서는 짓눌려 지내게 되므로 교회나 자선단체에서 이름을 내려고 이것저것 역할이나 지위를 노리는 사람이 몇 사람쯤은 반드시 있는 법이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참된 기쁨을 알 수가 없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먼저 말한 경우보다는 좋다. 그러나 여기에도 큰 위험이 있다. 이를테면, 목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목사가 좋아서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목사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잘한다면, 그 목사가 떠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목사의 개인적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봉사를 개인의 매력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위험하며, 또 목회가 한 사람의 인간의 매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목회는 정말로 성공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앞의 경우보다도 훨씬 좋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은 있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릇된 의미에서의 회중주의자가 되기 쉽다. 그는 자신의 교회의 회중이 최고이고, 자기 교회는 언제나 만원이고, 자기가 속한 단체는 크게 번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날을 꿈꾸고 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교회의 회중이나 자기가 속한 교파를 사랑해야만 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그것보다도 훨씬 큰 존재인 것이다.

결국 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곧 예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물어야 할 질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언제나 주님 곁에 가지고 가 그에게 그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우리로서 소중한 일은 오직 하나 - “잘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주 예수를 위해 일할 때, 오만이나 분노는 모두 사라지고 남이 하는 말이나 제 몸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래도 좋고, 남에게 봉사하는 일(필요하다면 그 일이 세상의 눈에 띄지 않아도 좋다)에 의해 예수를 섬기는 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길은 예수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위해 일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신실하게 배워가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바르게 배워가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인이 많은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예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함 무 즐 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리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제25호 (격월간)

발행일 2000년 7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 · 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 ~ 2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Lord-church.or.kr>

CONTENTS

- 1
예수를 위하여 / 임영수 목사
- 2
멀찍이 주님을 따르던 나 /
계학웅 장로
- 3
광장의 병원에 가득 찬 사람들 /
배경란 집사
- 4~7
특집 / 선교와 봉사
- 8
하나님이 보낸 천사 /
김찬영(유년부)
2000년 스무 살로 사는... /
임에스터(청년부)
- 9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고 / 이선이 집사
- 10
새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접속 방법
/ 인터넷부
- 11
신앙 클리닉
교회소식
세무상식 / 고정록 집사
- 12
짧은 '인연' / 이정성 집사
아름다운 것들은 깊은 곳 은밀히
숨기고 / 이시혁 집사
성경 펴줄



멀찍이 주님을 따르던 나

계학용 장로(5구역)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결심한 그 결단이 참으로 내 삶에 엄청난 결과로 열매 맺어 오는 것을 보곤 한다.

그런데 그 결단이 내 육신의 삶으로 이어질 때 잘한 결단 또는 잘못된 결단으로 오는 결과에 용기백배하여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과 통한의 마음으로 후회하며 통곡하기도 한다.

60 평생을 살면서 반복해가는 결단으로 환희와 낙심하면서, 생각하면 잘된 결단은 없는 것 같으나, 잘못된 결단은 여러 번 반복되어 습관처럼 되어버린 생을 뒤돌아 본다. 왜 그랬을까?

나도 삶의 여정 속에서 일찍이 여러 번 세상적인 행운이 찾아오곤 하였다. 물론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또한 물질의 축복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결단에 문제가 있었다. 잘못된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오랜 세월 나 자신은 말할 것 없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정, 또는 가까운 이웃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다행히도 잘못된 결단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잘못된 결단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타고난 성격상 더 많은 후회와 낙심될 것들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재물과 명예를 좇는 것이 세상적이었던 것이다. 즉, 교만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단이란 지금껏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뜰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잘못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좇느냐?” 아니면 “주님을 포기하느냐?”하는 절박한 시간에 기회를 봐서 결정하려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껏 주님 곁에서 살던 삶의 패턴에서 결단해야 했는데, 즉 예수님 바로 곁에서 주님의 신상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온몸으로 저지해야 하는 위치였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추한 모습만 남게

되었다. 나도 모태신앙인으로 어떤 경우에도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회에 맞추어 적당히 살아왔다. 참으로 새 터에 가면 새가 되고 쥐 터에 가면 쥐가 되는 삶을 살아 온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다. 나의 생활의 터전인 장 터에서 후자는 말한다. “계장로, 그 사람 왜 그렇게 고전하지?”라고. 후자는 “옴의 연단을 받은 것일 거야”라고 말한다. 나는 온몸으로 진실되게 말한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결단의 결과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 오늘의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던 내 분깃이라 믿는다. 통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고 산다.

앞으로 내 삶의 결단의 순간에는 고통 당하시는 주님의 바로 옆에서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싶다. 참으로 진실한 신앙인이 되려고 언제 어디서나 몸부림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나 이웃에게 득과 덕이 되는 삶이 되기를 애쓴다.

이런 결단이 주님 가까이서 하는 결단이라 생각하며 “주님 죄와 허물이 많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구로 써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싶다.

함께 **즐**거위 하고 함께 **을**라

에서는 원2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내실 곳 : 교회사무실
T. 416-5181~2 F. 416-5180



광장의 병원에 가득 찬 사람들

배경란 집사(29구역)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히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달빛보다 슬픈-

검은 머리

고개 숙이고 어깨 서로 기대고 쓰러질 듯

외롭고 슬픈 얼굴들

아, 병들고 상하고 찢긴 얼굴들 가득한

광장의 병원에

나는 서 있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이

여위고 창백한 모습 상한 영혼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대합실에-

전도하라! 기도하라! 치료하라!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두 번씩이나 잊을 수 없는 모습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 詩. 광장의 병원에 -

몇 년전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 속에서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넓은 광장이었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병들고 파리한 여윈 얼굴들이었고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서로 의지한 채 기대고 앉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후에 그와 비슷한 꿈을 또 한 번 더 꾸었습니다. 위의 글은 그때 쓴 시입니다. 그때 나는 인생이란 광장에 가득 찬 병든 사람들을 보았고 이 세상은 이와 같은 환자들로 가득 찬 커다란 병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꿈도 희망도 없이 병든 사람들로 가득 찬, 죽음을 기다리는 대합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나는 교회에서 신앙 상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갈등과 아픔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마음과 내 영혼에 상한 부분이 많고 컸으므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치유의 손길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평소애 상처 입은 영혼과 내적 치유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담 전화를 받거나 사람을 만날 때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생의 고난에서 허덕이는, 마음에 암 환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자들은 마음 속의 깊은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옹하게 하여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자기 자신의 신앙, 정서, 정신적인 고뇌의 문제들은 그들 각자에게는 너무나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며 고통과 아픔이 있기에 그들의 음성과 그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 어느 덧 나 자신이 그들의 괴로운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며 아파하며 몰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는 날 아침에 나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게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같은 문제의 내용을 30분, 1시간 이상 되풀이해서 쏟아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쏟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이기에 나는 조용히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문제들을 이끌어 주시고 치유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나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 그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되찾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커다란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상한 막대기인 너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너의 상함으로 상한 자를 치유하리라”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 두렵고 연약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과 아픔이 없었다면, 그때마다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들에게 한 마디의 말씀도 드릴 수 없으리라.

그러나 몇 번의 상담만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양육해갈 사람이 필요하며, 좋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소원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 고난의 문제 하나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겨나가고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도할 힘도 잃은 그들에게 “도와줄 분을 찾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하면 그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없다거나 자기의 깊은 속사정을 이야기하면 상처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그때마다 힘을 얻고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가서 다른 성도의 아픔을 도와주며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볼 때만큼 기쁨과 격려가 될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의 가슴에 또 한 번 살아서 간증이 되고 그 은혜가 넘칩니다.

고통이 극심한 절망적인 분들의 상담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저녁 길은 인생이 서러워질 때도 있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OOO 님을 도와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꼭 만나 주세요. 주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 1:3~4)”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아코니아의 길

강석영 목사



'디아코니아'란 말을 굳이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섬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토록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막 10:45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또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디서 확인될 수 있는가?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이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분명해진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단정한다(약 2:17).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었다. 이것을 위해 일꾼 집사를 선출하고 있다. '집사(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바로 '봉사자, 종, 일꾼'이다.

마 22:34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최고의 계명이요, 모든 율법들을 총정리 한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말씀이 한 곳 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란 의미이다. 하나님 사랑 = 이웃 사랑인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 25:40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약한 이웃을 돌보게 된다. 지극히 작은 자 = 주님이라는 디

아코니아 원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디아코니아의 길'이었다. 다시 말해 '섬김의 삶'이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장애인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셨다. 죄의 용서뿐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까지 담당하셨다.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이 사역의 목표이었다. 죽음과 재난으로부터 해방 받아야 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디아코니아의 기초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본 디아코니아의 영역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선교와 구제, 봉사가 모두 넓은 의미에서의 디아코니아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디아코니아의 외형은 '섬김'이고 내면성은 '사랑'인 것이다.

요즘은 교회 안팎으로 디아코니아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원 봉사, 사회 봉사, 사회 사업, 사회 복지, 사회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적 사랑에서 출발한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실천 방법들이다. 건전한 사회는 사랑과 나눔이 실천되는 곳이다. 어느 사회 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랑이 없는 사회는 미친 사회라고 한다. 한 정신병원에서는 500명이 넘는 건장한 정신병자들을 관리하는 데 5명 정도의 관리요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원장이 대답했다. "저(환자)들은 서로 협력할 줄을 모르거든요" 서로 도울 줄도 힘을 합칠 줄도 모르는, 이기심과 경쟁만이 가득한 사회... 그것이 미친 사회이다. 성경은 말한다.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 지라. 그 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사랑으로 서로 돕고 나누며 섬기는 것이 바로 율법(말씀)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손길을 펴는 것... 이것이 '디아코니아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방법이 '섬김의 삶'인 것이다.



사막의 외로운 형제에게 복음을

문희곤 집사(4구역)



1991년 예수님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국제 오웬 선교사로 모슬렘(이슬람 신자)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은 너무도 감격스러워 도무지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더워 10월의 40~50도의 햇볕에 6~7시간씩 영국 형제와 스위스 형제들과 함께 모슬렘 가정을 방문하며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모슬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너는 어디서 왔니?”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88 올림픽의 서울 코리아에서 왔다”고 했더니, 놀라면서 “그럼 불교 나라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불교인이었지” 했더니 “그럼 내가 너에게 예수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동네 사람이었으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당황하여 한참을 할 말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너는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 보았니?”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어?”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만난 바로 그 예수를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한국에서 이곳까지 왔어.” 하면서 저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직도 세계 많은 지역에는 예수에 관해서는 알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없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 가는 수 억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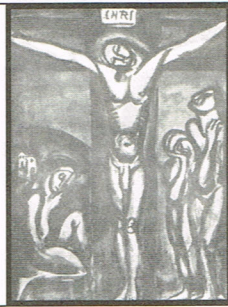
그 후 저는 중동 선교회 소속으로 인구의 99.99%가 이슬람교인이며, 1995년에 단지 10여 명의 개종자만이 존재했던 세상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된 나라인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르타니를 사역지로 생각하며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개종자 모하멧을 만나기 위해 저와 미국인 선교사는 6인승 차에 10명을 태운 택시를 타고 무려 12시간이나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 “아타르”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만나려 했던 개종자는 찾을 길 없어서 난감해 하고 있는데, 함께 여행을 한 모슬렘이 토굴 같이 생긴 자기 친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주인은 두 말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이 먹을 낙타고기와 염소젖 등으로 웅충한 대접을 했습니다.

다음 날 다행히 개종자 모하멧을 쉽게 찾았습니다. 모하멧과 우리는 가족들 모르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보통 개종자들은 자신

의 개종 사실을 숨기고 사는데, 만약 발견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공부와 상담을 하며 3박 4일간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살면서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나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너무 외로워.... 나는 늘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누군가 와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저는 그때 그곳 환경이 너무도 힘들어 자신없어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곧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 모슬렘 개종자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꼭 함께 살면서...”라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중동 땅에는 이런 형제들이 수 천이 있고, 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 가는 수 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갈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 후 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모르타니에 입국할 수 없어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지금은 잠시 중동선교회 본부에서 사역 중입니다. 효과적으로 모슬렘들을 섬기기 위하여 장신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교지에서 지친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주님의교회를 통해 안식을 취할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동 땅에는 우리 형제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 땅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을 대표하여 그 땅을 향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 생각합니다.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하나님

-캄푹 선교 현지에서

이성민 선교사



95년 11월 11일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4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캄보디아는 정치적, 사회적, 교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한 기간이었습니다. 주님의교회 가족들과 파송예배를 드린 후 관심과 기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운 시기마다 힘을 얻으며 지내왔습니다. 무엇보다 선교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 12월에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성경공부를 했던 소낙(남, 23세)이 신학생이 되어 교회를 위해,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안 일을 돕기 위해 저희 가정을 찾아왔던 완디(여, 26세)가 복음을 듣고 가족을 모두 교회로 인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고아원 성경교사로 있다가 신학생이 되어 주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섬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머무를 곳이 없어 절에서 기숙하며 대학을 다니던 몇몇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구하고 결혼하기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며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과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개척된 프놈펜의 '주님의 사랑교회' (Church of Christ's Love)를 모 교회로 하여 주 사역지인 캄푹 지역에 크고 작은 가정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의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떠나 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복음에 갈급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열병을 앓기도 하고 도둑도 맞아보고 전쟁도 경험하고 현지인들로부터 오해도 받으면서 저는 순간 순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낙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본, 미국, 태국에서 온 다른 외국인 사역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의 우물 사역, 농산물 증대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사역, 교육과 위생적인 삶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개발 사역, 그리고 미약한 교회의 지도력을 세워주는 교회 지도력 개발 사역 등으로 나누어 수도인 프놈펜에서 110km 떨어진 캄푹주(Kampot Province)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95년 당시 한 개의 교회 밖에 없었지만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는 동안 복음이 전해져 지금은 38개

의 마을에 크리스찬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의 사역은 이러한 교회들의 연약한 지도력을 세워주는 일인데,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모임을 돕고 정기 훈련을 통해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수가 적을 때에는 일주일 동안 오전, 오후로 나누어 마을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교회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 곳에 모여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에 장소 마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훈련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 혹은 자전거로 1시간에서 3시간을 달려 오는 50여 명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숙식할 수 있는 훈련장소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몇 분의 도움으로 땅이 준비된 후 강의실이 지어졌고 얼마 전 숙소동을 위해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완공하지 못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사역을 돕는 4명의 현지인 간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 나이가 제일 많으신 '섬'(남, 53세)이란 분은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함께 일하자"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나가기 전 성경공부 시간에 들은 그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이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을마다 다니며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 저는 얼마나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우리처럼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많이 힘드셨을텐데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쉽게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그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그 외에 캄푹의 전도자 솜울(남, 29세), 리끼, 비켓...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지낸 지난 4년여 동안 통역자들을 변화시키고 누구보다도 이곳에서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신 <주님의교회> 모든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내와 운운함, 섬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프놈펜 교회의 전임 사역자 발굴과 올해 신학교에 입학할 신입생 선발을 위해
2. 함께 일하는 지체들(삼보, 솜울, 섬, 비켓, 호)과 신학생들(소낙, 마네, 완디, 라까나)의 영성과 학업을 위해
3. 자녀들(세빈(12), 정빈(9))의 바른 신앙 성장과 정서를 위해
4. 훈련센터 숙소동의 완공을 위해(지붕, 벽, 창문 등)
5. 주님의 사랑교회를 위한 사역비와 가족 생활비를 위해,



주요 「영성」은 서로 사랑함이다」

농어촌 자매교회 탐방 보고

김영아 권사(제2여선교회 회장 · 1구역)



5월 3일 오전 8시 35분 강석영 목사님의 기도로 성백송 장로님, 김성배 안수집사님, 고초순 권사님, 2여선교회 배홍자, 최윤정 집사님, 3여선교회 고정순 집사님, 나, 우리 일행 8명은 전라북도 하굴암 마을의 굴암교회와 전남 영암에 있는 미교교회를 탐방하기로 하였다.

5월 초여름의 햇살이 따갑게 비치는 차창 밖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콧노래를 부르며 50대 중반의 나이에 주님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는 기쁨을 누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검정색 그물망에 몸을 감추고 있는 인삼밭이 드문드문 보이는 금산을 지나 10분쯤 더 갔을 때가 오전 12시 정각. 드디어 우리의 첫째 목적지인 하굴암 마을에 도착했다. 구불구불 강을 따라가는 동안 인적은 없고 조용히 강물만 흘러 인가가 없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교회는 형편이 어려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일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안되었네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 최전도사님이 위대해 보이기도 했다.

잠시후, 좁은 비탈길을 지나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500평 부지에 30평 정도의 빨간 벽돌로 지은 예배당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우뚝 서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예배당 입구에 「상도교회 기증」이라는 팻말을 보고 아아 그렇구나 하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섰다.

몇 명 안되는 노인 신자들은 모두 발에 일하러 나가고 없는 낮시간이라 강목사님 인도로 최전도사님과 우리 일행은 동그렇게 둘러앉아 간단한 인사후 예배를 드렸다. 최전도사님의 소망은 우상숭배를 하는 강변마을의 선교사로 계속 일해 15~20명의 신자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강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 굴암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집이 되어 살아가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영혼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 떨어져 있어도 집을 나뉘지는 여선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찬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다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다짐하며 예배를 마쳤다. 최전도사님은 직접 만든 감식초를 사랑의 답례로 주시며 농가에 담아 놓은 것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하였다.

방문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예배 후에 점심을 먹기로 했던 우리 일행이 싸리재를 넘어 무주의 향토식당에 도착한 시간은 2시 50분이었다. 하나님, 육신의 배고픔을 잘 느끼듯 영적 배고픔도 잘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 드렸다.

우리는 순창, 남양, 광주, 나주, 영산포를 지나 영암에 도착, 해가 누엿누엿 지는 황혼을 배경으로 병풍처럼 길게 펼쳐져 있는 월출산의 비경에 감탄하며 영산강 하구에 자리잡은 30여 가구가

사는 조그만 마교리 마을에 도착하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시각에 청년이 손을 흔들며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며 안내를 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반갑게 환영해 주셨고 나눔의 물품 전달을 위해 몇 번 다녀가신 성장로님, 김집사님과 구면이라 더 반가워 하는 눈빛이었다.

마을의 문지기처럼 자리잡은 조그마한 예배당과 인자해 보이는 목사님과 마을 분위기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이곳을 진실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이 마을에 장철수 목사님이 부임하여 야간에 학생들을 기도와 보충학습으로 잘 지도하여 도심학교에 진학시킨 후, 이곳 어른들이 하나, 둘 주님 앞에 인도되었고, 지금의 예배당은 미교리에 길이 뚫려 보상금 2천만 원으로 지어졌고, 이전 건물은 사택으로 쓰고 있다는 목사님 말씀에 우리 일행은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8시 10분전 「주님의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로 장식된 예배당에는 손님을 맞이하고 서울에서 오신 강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듣기 위해 낮의 피로도 잊은 채 10여 명의 온 신도들이 모였다. 우리들은 준비찬송과 율동을 배우며 어린 아이처럼 기쁘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강석영 목사님은 딤펢전 3장 15절 말씀을 대언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 마음은 눈물 흘리는 미교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복음의 군사되기 위하여 부흥교회의 4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첫째, 상처받은 영혼이 교회에 들어가면 축복받을 것 같은 좋은 분위기

둘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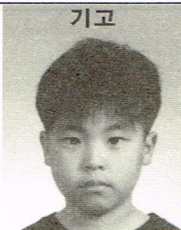
셋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랑이 있는 교회

넷째, 배운 대로 실천되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또,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감격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끝까지 생명 열매 맺는 미교교회가 되라는 권고의 말씀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미교교회와 주님의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자는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먼데서 왔는데 어떻게 한대요」하며 저녁 대접 못한 것을 미안해 하는 칠, 팔순 할머니들과도 서로 악수를 나누며 만남의 작별을 아쉬워하고 친절하고 순박해 보이는 청년이 미교교회 사역에 중요한 도구 되기를 주님께 간구드리며 어둠을 헤치고 숙소로 향하였다.

기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

김찬영(유년부)

오늘 선생님께서 내일 받아쓰기 시험을 친다고 집에서 공부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보통 때처럼 저녁 먹고, 목욕을 하고 책상에 앉아 어린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숙제부터 하고, 받아쓰기를 위해 책을 세 번 읽고, 어려운 낱말을 한 번 적어 보았다.

엄마랑 집에서 연습할 때 100점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기도 때에 엄마가 받아쓰기 할 때 어제 공부한 것 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다.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는데 2번에 「닭아 주니까」를 부르셨다. 처음에는 「닭아 주니까」로 적었는데 문득 「닭아 주니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웠다 썼다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살포시 감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야 그것은 쌍기역이야”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다른 아이들도 들었겠지 하고 주위를 돌아 보았는데 아니었다. 그 덕분에 나는 100점을 받았

다. ‘우리 엄마는 역시 훌륭해’ 생각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나의 손을 잡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나는 저녁에 아빠에게 왜 천사가 엄마였나? 왜 큰소리로 이야기했나? 여쭙어 보았다.

아빠는 내가 엄마랑 매일 생활하고 공부하니까 평소의 모습 그대로가 나에게 익숙해 그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부터 조용히 얘기 해야겠다. 소리를 질러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2000년 5월 31일 둘째 시간을 항상 기억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엄마가 아침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 찬영이 항상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고



2000년 스무 살로 사는...

임예서(청년부)

살다보니 어느새 그렇게도 미칠 듯이 꿈꾸워왔던 스무살이 되었다. 어린 시절... 내게 있어 스물이란 나이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낭만적이며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다른 시작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잔뜩 남기곤 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나의 자리를 빛내는 나의 모습들을 상상하며 지겨운 10대를 빠져 나왔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그 말처럼, 나는 원하던 대학교와는 전혀 다른 곳에 진학했고, 그리 잘난 실력을 보이고 싶지도 않다. 고등학교 입시가 끝나고 밀려오는 수많은 허탈과 좌절은 날 암울한 스무 살의 시작으로 초대했고 나는 매일 내게 주어진 현실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곤 했다. 사람들은 새 천 년이라며 떠들고 있을 때 나는 나의 계획과 너무 달라진 이 삶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다.

살아간다는 그 말들이 때로는 희망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내게 찾아오곤 한다. 앞뒤 꼭 막히고 갈 곳이 없는 듯하여 캄캄한 막막함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빛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 한 가지는 내 옆에는 나와는 사뭇 다른 계획을 가지고 등장하는 하나님

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갑작스레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해야 할지 속상해야 할지... 여러 갈등들이 오고 가지만, 그래도 훗날 내 계획을 주장하여 또다시 되돌려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2000년의 스무 살은 그리 재미있지도 그리 신나지도 않지만 분명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난 오늘도 내게 새롭게 소중해지고, 우리 학교가 아니었으면 그 어디서도 만나기 힘들었을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또 연습하기 지겹지만 그래도 가끔은 연주할 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내게 선물하는 오르간을 치고 있으며 친구들과 매일 뒀 궁리만 하지만, 그래도 수업에서 이것 저것을 얻고 있다.

지금은 좀 섭섭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그런 말들을 풀어놓을 나를 그린다. 가장 행복한 미소와 자랑스러운 말투로...

나와 같은 스무 살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중한 만남을 간직하고 늘 희망적이길 바란다.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빛나야 이 세상도 빛날테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고

이선이 집사(76구역)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생각이나 생활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서로 다른 외계인'으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존 그레이 박사는 부부라는 관계를 주제로 삼았지만 우리 모두의 관계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읽었다. 가정이나 단체, 나라 또한 개개인의 특성과 견해 차이로 인하여 빚어지는 갈등은 끝이 없다. 어쩌면 갈등이라는 모순 속에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다.

존 그레이 박사는 30년간 인간관계 세미나를 열면서 부부를 위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25,000쌍의 부부가 이혼 직전에서 구출되었다고 한다. 때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과 행동을 지닐 수 있는 사람들만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쉽고도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좌절을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일에 별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 성급하게 요구하고 판단하며 원망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고 나의 방식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내 생각만 고집한다면 관계는 불필요한 비난과 마찰로 가득찬 결과가 될 것이다.

남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침묵이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때 여자들은 자칫 오해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남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찾아 하면서 동굴에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여자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남자는 말이 많다고 하거나 자신에 대한 공격적 자세로 오해하게 된다. 남편은 여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갈등을 인정하며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들은 길을 찾는 일조차도 여자의 조언보다 스스로 찾기를 원한다.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느낌을 남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하여 만족을 느낀다.

일방적인 베품에서 오는 갈등 또한 크다. 수잔은 이혼을 원했다. 12년간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던 삶에 대한 회의에서였다. 자신의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여자와 그런 아내에게 귀기울이지 못한 남편의 관계는 이혼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다. 논쟁의 문제 또한 갈등의 요소이다. 두사람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달리 할 때, 의논이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예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한다. 입을 다무는 부부가 있다. 당장은 평온이 찾아오고 화합이 이루어진 듯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덮어두고 불쾌한 서로의 감정을 방치하면 원망이 점차 쌓여간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행동하거나 자신의 욕구와 바램을 희생물로 삼는다. 언뜻 보면 매우 애정 깊고 상대를 배려하는 관계를 가꿔 가는 듯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제의 해결은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고 서로 관점의 폭을 넓히고 유연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들 또한 많은 견해 차이로 갈등에 시달렸고 논쟁에 임하여 왔다. 앞으로도 끝없이 일어날 것이다. 어차피 갈등이 인간사에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갈등을 자신의 성숙의 계기로 삼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다. 남의 문제는 쉽게 볼 수 있으나 자신의 문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문제와 논쟁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정적 관점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고쳐 보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땅에 90년을 머물다 가기도 쉽지 않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살다 가기도 아쉽고 귀한 시간들이다. 서로 다른 객관적 관점이 받아들여지고 자기 개선 속에서 원활한 합일점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책을 덮었다.

권하는 책

행복한 가정 · 부부관계에 대한 책으로 다음의 책을 권해드립니다.

-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 고든 맥도날드, IVP
- 작은 천국 만들기 / 추부길 · 김정희, 예술
- 당신의 가정도 치유될 수 있다 / 정동섭, 하나
-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 이선애, 조이선교회
- 강자와 약자 / 폴 트루니에, IVP

"진정한 신앙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망설임과 실수, 갖가지 실망과 잘못된 출발 등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느끼는 것이다."

- 폴 트루니에 저 「기술과 신앙」 중에서

새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람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은 예외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는 연세가 많을수록 더욱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구역에 속하여 적응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새 가족이 주님의교회를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구역에 속하여 구역 식구들의 눈과 입을 빌려 교회의 구성구석을 살피는 것이다. 교회의 흐름, 역사, 그리고 목회철학(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구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 모임은 새 가족에게 교회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는 곳이다. 그러나 소홀히 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새 가족이 구역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전혀 생소한 구역의 분위기와 그들만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나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한 구역 식구로 지내온 사람들은 그들에게 익숙해 있는 고유한 언어문화와 교감하는 감정이 있기 마련이다. 서로가 친숙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오묘한(?) 농담이나 절묘한(?) 표정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기에 부담없이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역의 분위기에 익숙치 않아 긴장상태(?)에 있는 새 가족이 상대로부터 감당 못할 농담과 부담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적지 않게 당황할 것이다. 구역 식구들 간에는 이전부터 전개되어, 알고 있는 해프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방바닥을 치고 박장대소할 때,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 새 가족은 눈치를 살피며 표정 관리에 돌입해야 하는 외로움을 곱씹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역 식구들은 새 가족이 구역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그분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새 가족이 묻지 않아도 궁금해 하고 있을 법한 내용을 미리 감지하고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우리네 사람들은 상대가 묻기 전에는 죽어도(?) 설명(대답)해주지 않는 고집이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로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듯이 무관심하면 가뜩이나 교회를 옮겨 서먹서먹한 터에 얼마나 힘들어 하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접속 방법

인터넷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전화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리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접속 방법입니다.

1.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마우스로 두 번 클릭해 주면 인터넷이 시작된다.(넷스케이프도 가능)
2.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윗 부분을 보시면 주소를 타이핑해서 넣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http://www.lord-church.or.kr>이라고 입력한 후, 엔터 키를 친다.
3. 그러면 잠시 후, 화면에서 주님의교회의 기초 화면이 나오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주소를 타이핑 하는 것이 번거로우면 화면의 메뉴 중 즐겨찾기를 눌러서 '즐거찾기 추가'를 누르면 다음에 금방 찾아올 수 있다.
4. 우리 교회의 기초 화면에 아예 인터넷을 시작하게 할 때 처음의 기초화면으로 설정하게 하는 기능을 달아 놓았으므로 그곳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을 시작시킬 때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초기화면이 뜨게 할 수 있다.
5. 교회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기 위해 우선 사이트맵(Sitemap)을 눌러 각 항목의 설명을 먼저 본다.
6. 목사님의 설교, 함줄함울, 예배안내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

적으로 관련 메뉴로 들어갈 수 있다.

- 기본적으로 방명록과 게시판 두 곳에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간증을 써 넣을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방명록에는 간증이나 요청사항, 게시판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사항을 써 넣으실기 바라며 반드시 차후의 수정을 위해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잊지 마시고 입력할 것.
7. 보다 신속한 상호연락을 위해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메일의 주소도 함께 써 넣어 주시기 바란다.

이메일을 발급해 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이름으로 전교인 대상 e-mail을 발급해 드립니다.

- 메일 주소 : 원하는 ID@JUNIM. OR. KR
- 신청 : 직접 www.junim.or.kr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십시오. 인터넷 경험이 없으신 분은 안내에 비치된 이메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사무실 내의 인터넷부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시행일자 : 2000. 7. 1
- 문의전화 : 416-5181(교회사무실)
011-272-0324(인터넷부장 이종석 안수집사)

Q : 고3인 딸의 대학입시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목표하는 대학이나 점수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인지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만 하면 기도가 안되고 맥이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입시를 앞둔 딸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54구역 이은영 집사)

A : 고 3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혼자서 지고 가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 3 딸을 위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목표하는 대학, 점수문제까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딸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3 딸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딸의 미래에 대한 염려의 내용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고 3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서 많은 해답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고 3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은 많습니다. 물론 시급한 것은 좋은 점수로 대학에 합격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효력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자녀를 위탁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목적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을 좀더 깊이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12면 성경퍼즐 정답)

베	다	니		지	옥
데		므	깃	도	
스		롯		자	유
다	말		에		
	라	이	스		심
생	기		더	디	오

주님의교회 교육부 여름수련회 일정

- 청년부 : 7/15(토)~24(월) 태국단기선교
- 영·유아부 : 7/16(주일)~17(월) 교회·다윗동산(마석)
- 유치부 : 7/23(주일)~24(월) 새싹동산 청려수련원 (경기 화성군)
- 소년부 : 7/23(주일)~25(화) 경기도 송추 연대본부 내 교회
- 유년·초등·중등부 : 7/24(월)~26(수) 마니산수련원 (충북 영동군)
- 고등부 : 8/7(월)~9(수) 음성 꽃동네 수련원(충북 음성군)
- 장년부 : 8/16(수)~18(금) 광릉수목원 세미나하우스

세례·입교식 개최

지난 6월 18일 세례·입교식이 열렸는데, 세례·입교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숙E, 김찬우, 김태환, 김혜순, 박재만, 박정인, 배은영, 유점임, 장춘근, 조정희B, 채미애, 홍범오

주님의교회 창립 12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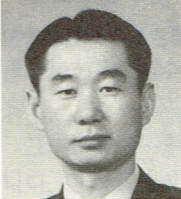
지난 6월 25일은 주님의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이었다. 또한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임직식이 있었다.

- 장로장립 : 전세표
- 집사안수 : 엄주청, 백승준, 김한중, 조원호, 최상용, 김완중, 한병호, 박치용
- 권사안수 : 전은숙, 이경아A, 박경옥, 강은애, 곽에스더, 이상경, 남현숙A, 최성화, 신성숙, 서은숙

여성성가대원을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수요일배 여성성가대는 한 달에 두 번(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함께 모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함께 찬양드릴 분을 찾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재숙 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상식



납세의무와 신용카드

고정록 집사(21구역)

금년부터 납세제도에 있어 달라진 것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납세제도에 있어 혁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용 의무화이다.

신용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을 매월 추첨하여 최고 1억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최고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런가 하면 기업은 10만원 이상의 지출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든지 해야 한다. 또한 절대비성격의 지출인 경우,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실효성이 상당하다. 직·간접으로 부담하는 세금의 액수는 상당한 금액에 이르며 개개인의 생활소비에 따라 계산해 보자면 모두가 놀란다. 그러나 본인도 놀랄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지출의 계산 형태에 따라 성실한 납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조세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내가 생활 속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포함된 세금이 성실하게 국고에 납부되고 있는지 우리 대부분은 관심이 없다. 지출을 신용카드로 한다면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 우리가 소비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은 100% 국고에 납부되지 않을 수 없으며, 행운이 따른다면 1억 원의 당첨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소득공제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의 효과도 높지게 되는 것이다



시조

짧은 인연

어린 자식 하늘 보낸 아우

이점성 집사(64구역)

하늘과 땅 사이 뚫린 가슴 버티고 앉아
싸늘한 머리 곱게 닦고 정성껏 꽃은 꽃핀
초연히 보낼 준비하는 손 파르르 떨고 있다.

죄된 세상 몸으로 다 앓고 가는 아가
혈육의 애뜻한 정, 만 사 년도 길더냐
천사의 나팔 소리가 네게만 들리더냐

삶의 기쁨 알게 하고 죽음마저 끌어놓고
가는 세상 평안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토록 이별의 얼굴이 예뻐도 되는가.

비내리면 기침 소리, 꽃피면 들릴 웃음
피불이 향한 갈증 여기 홀로 풀어야 하리니
오 주여, 만남의 새로운 인식 눈뜨게 하소서.

그리움 그 먼 여행, 저 하늘가 다다를 때
아가는 짧은 인연 새 하늘에 이어놓고
금꽃관 앙증맞게 쓰고 주님 따라 마중 올테냐.

.....

아 - 잠깐만, 아직 그 뚜껑 닫지 말아요.
울음보다 질은 입맞춤 하얀 볼에 남기고
이 땅의 마지막 모습- 영혼에 추스려 안는다.

* 사랑스런 아이, 맑고 명량한 눈빛을 가진 아이, 눈꽃같이 예쁜
아이, '경기'로 만 4년을 하루 8번씩 약을 먹었다. 2년 동안 좋아
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올 3월, 느닷없이 '폐렴'으로 입원하더니,
'급성천식'이란 병명 아래 3일 만에 하늘 나라로 갔다. 너무도 빠
리 온전한 안식을 찾아서...



시

아름다운 것들은 깊은 곳
은밀히 숨기시고

이시혁 집사(20구역)

얼마 전 수족관에서 또 다른 피조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깊은 물 속에 그려진 아 그 아름다움!
물론 압축된 인공물이라는 것을 감하더라도 말입니다.

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깊은 물 속과 가까웠던 시기는 아주 짧을 수밖에 없었지만
창조 이래 우리가 보던 물의 세상 그 아름다움이
엄연히 저 깊은 물 속에 또한 자리한다는 사실이
내내 나를 엄숙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하긴 혼한 것에 길들여 있는 우리의 눈은 그래서
허무하리 만큼 더 피곤한 지도 모릅니다.
탓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너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통 은밀한 곳을 들추어 보는
그것을 들어 용기라 하지 않더라도
종교인의 한 무리처럼 보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엔
가끔은 전혀 다른 곳에서도 그분의 목사를 보고 싶은 것입
니다.

살아 갈수록 그분의 자취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는 것
제겐 너무나 큰 아름다움입니다.

성경퍼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로열쇠)

- 한 여인이 예수께 나드 한 옥합을 부은 장소
-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갈 곳
- 솔로몬이 대규모 건축 공사를 한 지역. 에스드렐론 평원 서남부에 있다 (열왕기상)
- 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 유다의 며느리.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
- 미갈의 두 번째 남편의 아버지(사우엘상)
-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
- 바울의 서기(로마서)

(세로열쇠)

- 예수께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곳
-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
- 앞서 이끌어 가는 사람
-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 자기 민족을 구원한 아하수에르왕의 비
- 깊고 오묘함

(해답은 11면에)